

어 린 이 놀 이 터 의 위 험 요 인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 경영기획부 주임 한재홍
02)579-3291 hanjh@esak.or.kr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부족현상이 있다곤 해도 아파트가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도 많이 들어서 있다. 웬만한 아파트단지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 그러나 그네사슬의 마모, 놀이공간의 부식부위, 날카로운 모서리 모양의 절단면과 같은 어린이가 놀기에는 위험천만한 부분이 눈에 많이 띄고 있다. 이러한 위험한 현상은 선진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어린이 놀이터의 위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선진국의 엔지니어들은 현재 수많은 놀이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검토하며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결과 어린이들이 많이 집중되어있는 공동주택 단지, 아파트단지와 유치원의 놀이터 시설물의 낙후와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는 잠정적 평가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보고되어 있다. 또한 놀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놀이터 안전기준에 대한 지식이 상식선 이하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새로운 놀이터의 설치에서부터 관련기준이나 법규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었다.

특히 독일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유달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놀이터 안전기준 법규에서는 어린이 놀이터에는 적어도 매년 한번씩은 전문가의 전반적인 점검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초 콘크리트 검사도 의무화되어 있다. 놀이시설물의 마모 혹은 손상에 대한 검사는 3개월 주기로 행하여지며, 전반적인 육안검사는 일주일 단위로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손상된 놀이 시설물로 인한 사고시에는 관리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의견이 팽배해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검사와 인증업무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라는 테마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동주택단지, 놀이터 관리회사, 유치원관련 직원들이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의 설치법과 안전점검의 정상적인 수행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특히 중요한 것은 놀이터의 바닥상태이다. 모래, 나무껍질, 낙하보호판지, 매듭이 없는 낙하보호

외장재는 미끄러지거나 흔들림으로 인해 기어오르는 놀이기구로부터 떨어졌을 때 유발될 수 있는 증상으로부터 보호한다. 바닥의 완충효과는 성장한 어린이일수록 떨어진다.

무엇보다 부모들이 놀이터와 놀이 시설물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가시적인 결함, 예를 들면 모래속의 유리조각이나 기어오르는 기구의 녹슨상태 등을 발견시 즉시 연락을 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 놀이터에서의 완전히 100%의 안전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어린이들 스스로가 놀이터 시설물의 위험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배워야 한다.

근래 들어와 어린이들의 운동신경이 예전에 비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오늘날 특히 필요하다 고 하는 분석이다. 놀이터의 검사목적은 놀이터의 위험요소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위험요소들을 줄이고 위해요소를 최소화하는데 의의가 있다. 독일에서는 어린이 놀이기구와 관련된 많은 인증경험과 심도있는 심사로 시설물의 수준이 국제규격에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보이지 않는 위험요소, 많은 놀이터들이 큰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그로 인해 법규에서는 정기적인 검사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건설교통부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나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시행규칙” 등이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규정이라기 보다는 상식적인 규칙을 나열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제 우리나라도 규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여 어린이들을 안전한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위험에서 완전히 보호해야 할 것이다.

